

아간다.

교훈이 무한히 강화되어 지금은 처음에 그들을 몰아냈던 같은 손길이 그들을 다시 이끌어온다. 이제 한 사실이 가정화 되는데 교훈 토라가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니 다시 영접함을 받은 내던져진 돌이 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특히나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며 부르심이 세대를 통해서 서로 서로에게서 배워 생생하게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겠는가? 젊은 자로부터 늙은이에게까지 생생한 체험을 하였다. 저들의 포로 생활의 비참에서 올라올 때 저들 모두가 경험한 사실, 전에 일찌기 말하는 것을 들었던 대로 야웨의 백성이 큰손과 편팔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은 전형적 구약의 “체험”(eruarig) 지식이다. 이런 체험적 지식이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전수적 지식을 가치가 없다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후자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이 일어났지”라고 참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마다 유일절 식탁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게 “수전이 그 마음을 덮은” 사실을 말하였다(고후3:15), 이 수전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고대 교훈공식을 반복하므로 마음과 눈을 완전히 덮어 버렸다. 그럼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 너희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는 고대 교훈이 새 사건으로 인해 참으로 체험될 것이다. 그리하며 각자마다, 젊은이로 부터 늙이이에 이르기 까지 말하게 된 사실은 야웨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리오! 라고 한다.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중 새언약은 애굽에서 나왔던 옛 조상들의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저들이 깨뜨린 옛 언약과는 다르다.

새 언약에 기록된 토라는 이제 주입되어 있어 사실들로 코가 납작하게 됐다(met de neus op de feiten zal drukken) 그래서 그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어 이상 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는 하지 않고 모두가 놀라운 귀환의 순간을 체험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주 하나님은 순전히 자비히 여기시는 분 주권적 사죄를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된 것이다.

자비와 사죄는 예레미야가 이 31장에서 말하면서 이 위대한 약속으로 끝을 맞는다. 왜냐하면 (하역에는 없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 말한 것 지식에 대한 동인(motief)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다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교훈을 떠남의 동인이 된다. 이것은 바로 연결해 주는 논리적 계기들이 아닌가 그리하여 첫것은 골고다의 부활절로 연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 예견되어 있는 구원이 시간의 파쇄속에 들어오기 까지 순서따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다음호에 계속될 것이다.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한 정 건

(고신대교수, 구약학)

4.7 롬 9-11장에 대한 바울의 요약(롬11:25 이하)

4.7.1 이 단락을 롬9-11장의 나머지부분에 덧붙임

25-27절은 여러 세기동안 수많은 논쟁이 극에 달했던 격전장이 되어 왔다. Bartling의 말대로, 이 구절들은 자주 곡해되었었다. : “바울서신은 베드로때부터 곡해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벧후3:16). 그 배경을 따라서 이 특별한 구절에 대한 해석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주석적인 곡해를 예증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Calvin과 그의 추종자들의 해석에서 나타난다.

이 어려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과 나머지 구절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본 단락이 하나의 결론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전되어진 개념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만약 이 단락이 후자의 의미라면 26절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그 앞부분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구절은 9-11장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1) 25절의 도입단어인 $\gamma\alpha\beta$ 은 이 구절이 앞에서의 언급, 특히 24절의 언급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바울이 새로운 개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Sanday 와 Headlam이 지적한 대로, $\gamma\alpha\beta$ 은 특별히 “비밀”이라는 단어와 연관 된다. 그 “비밀”은 9장1절부터 이 식점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1장1절부터 줄곧 다루어져 온 역사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말해준다. 따라서,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단락은 앞의 단락들과 단순하게 연관되어 있다기 보다는 9장에서 11장24절까지의 그의 모든 논지의 요약인 것이다.

3) 11:25-32의 내용은 Coetzee가 확신있게 보여준대로 9-11:24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그 “비밀”의 첫번째 부분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는 아주 명백하게 11:1-11과 17-24절(특히 11절)로 되돌아 간다. 두번째 “비밀”인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일시적으로(“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는 11:1, 7, 11과 23, 24절에서의 바울의 확신과 일치한다. 28절 상반절은 9:30-10:21의 진술에서 추출된 것이며; 28절 후반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구절 역시 9:6-29; 11:1-2; 11:16-18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의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대한 설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9절은 우리로 하여금 9:6; 11:2; 11:16에서 바울이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요약된 구절속에서 이전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25-32절이 새로운 개념을 꺼내어 놓는 대신 이전의 논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롬9-11장의 핵심적인 주제,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명백히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7.7.2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비밀들.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계획을 강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Brown은 이 단어의 의미를 썬족어의 배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늘의 계획들을 환상을 통해 보고 증거한 선지자들이 그 계획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음을 구약에서 증명하고 있다(cf. 사4; 단7:9ff). Bornkamn은 다니엘의 환상을 종말론적인 비밀로서의 그 단어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이로 설명하고 있다(단2:27f, 47). Bornkamn에 있어서 비밀이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정해진 미래의 사건을 의미한다. Brown은 롬11:25절의 비밀을 “구속의 경륜(divine economy of redemption)”과 관련하여 적용시킨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용례에 있어서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한 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그것을 받도록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드러내어진 비밀의 계시를 의미한다. 구원의 신적인 계획은 불가사의하거나 난해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들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배치된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계시사에 있어서의 구원에 관해 선지자들과 바울에 의해 잘 알려진 비밀인 것이다. 예를들면, 그 비밀들 가운데 하나는 세계도처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며(롬16:25; 골1:26f; cf 고전2:1; 엡3:3ff; 3:9; 6:19),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Barth가 암시한 것 처럼 “역설”이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사고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비밀을 계시함으로써, “소망없는 실체가 깨어져 소망을

이해하고 그 소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비밀은 참으로 기독교인의 종말론적 소망속으로 깊게 침투되어 있기에, 바울은 자기의 독자들에게 그 비밀에 감추어지거나 무시되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아마도 그의 의식속에 이방인 독자들을 생각하였으리라).

그 비밀은 이 본문 가운데 적어도 세가지 요소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 (1) 이스라엘의 완악함;
- (2)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구원;
- (3) 이방인의 구원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

4.7.3 이스라엘의 완악함

오늘날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완악함의 두가지 중요한 측면을 인식해야만 한다. 첫째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부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존하여 오셨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보증으로 부분적으로 남은자들을 지키신다. 그러나 다가올 그 날에는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아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단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지속될 것이다. 시제접속사인 *αχολς* 는 여기서 반드시 “-까지”로 번역되어야 하며, 히브리서 3:13에서처럼 “-동안”으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바울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그 기간동안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이 어느 때가 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문장은 오히려 끝의 시작과, 그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11:15).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은 이 단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관점과는 다르다. 예를들면, Hendriksen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대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 그는 눅17:26-37과 벰후3:3-9의 주석을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순간 닫혀질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한 부류의 완악함과 이방인을 모우는 것은 나란히 일어난다; 그 완악함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시대동안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Hendriksen에게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총체이며 그것은 이 시대의 끝이 아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Robertson은 또한 그 구절이 시제적인 중요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그 구절은 ‘국부적인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져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αρχις ου*라는 구는 상황을 그후의 일반적인 여건들이 발전됨을 강조하지 않고 시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지점(시간의 종말까지)에 까지 옮기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견해를 “*και ουτως*”라는 구절과 26절 상반절의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구절과 함께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4.8.1과 4.8.3을 보라).

4.7.5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옴

“들어온다”, *εισελθῃ*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원의 성결한 공동체에 가입된다는 의미로 쓰여진다. Sandy와 Headlam은 그 단어가 “거의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나라, 또는 신적인 영광이나 삶에 가입된다(entering into)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cf. 마7:21; 18:8; 막9:43-47)”고 한다. 우리는 그것의 가장 명확한 예를 롬11:17-24에서 “감람나무”의 은유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Sandy와 Headlam은 12절에서 *το πληρωμα*가 유대백성의 총체를 의미하듯이 여기의 *το πληρωμα*도 이방세계의 총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Munck는 그것이 도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수라는 생각없이 문제의 그룹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바울의 다른 성경구절들, 즉 롬15:19; 골1:25; 딤후4:17 등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그 단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충분한 살포”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그는 그 단어가 이방세계의 총체를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되게 말한다. Bauer 또한 질적인 성취를 신적인 요구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평범하게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양적인 의미로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의 총합계로서 간주되어지곤 한다(Hendriksen). Murray는 이 가정에 대해 요약된 요점들을 제시한다:

- (1) “들어온다”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나라에 가입하는 수를 생각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일부분만 완악함”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암시를 준다.
- (3) 26절의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의 남은자로 대조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언급하는 것이다.

Murray의 지적대로라면,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방인의 충만

함”이라는 표현속에서 어떠한 숫자적 비례의 개념도 끌어들이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 쪽의 견해는 받아들이고 다른 한 쪽은 무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대안(Option)을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이 구절은 질적인 성취를 언급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의 충만하고 완료된 숫자”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적어도 그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방향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수적으로 최종적인 절정이나 혹은 이방인의 구원... 등을 나타낸다. 충만함이란, 세상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총체, 즉 택함받은 자들의 전체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전체로서의 이방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4.8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롬11; 26상반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지점에 이르렀다. *πας Ισραηλ*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세기를 지나면서 논쟁이 되어왔다.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사의 진리나 역사속에서의 여호와와 사역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된다. “모든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한 4가지 주된 견해를 우리의 논의를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택한자. 즉, 교회. 이는 Calvin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2) 이스라엘 민족가운데 선택된 모든자. 즉, 남은자. Barvinck, A. Kuyper sr., Hendriksen, T.H.Zahn, Hoekstra, Lenski, Robertson등이 지지한다. 이 견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스라엘의 장래의 소망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 W.Vischer, H.A.W.Meyer, E. Stauffer등이 지지한다.

(4) 인종적-역사적인 이스라엘민족 전체로서 이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이다. Sanday, Headlam, M.J.Lagrange, Barrett, Munck, Coetzee, Murray, Berkhof, Ridderbos, Kasemann, E.F.Harrison, de Villiers, Davies, 등이 지지한다. “모든 이스라엘”의 의미를 확정짓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전치사 *και ουτω*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 제시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4.8.1 “이러하므로 (and so)”의 의미

이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그것이 앞절과 평행을 이루느냐 아니면 앞절에서 설명된 계시로부터 파생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로 크게 첨예화되어 있다.

Hendriksen같이 “남은자”에 대한 (2)번의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but*의 의미가 “그리고 나서 (then)” 또는 “그후에”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와같이”를 의미한다. Hendriksen에 의하면 *και butως* 뒤에 오는 문장은 두개의 비밀들에 잇따라 오는 새로운 부가물 (and addition)로 보여지기 보다는 오히려 앞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충해주는 (설명하는) 것이다. Robertson은 그 단어를 시제적 징후로서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는 “그리고 이렇게”로 번역한다. 그는 이 문구를 앞절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리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라는 식으로 “까지”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에 근거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미래적 사건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유대인 대부분의 완악함과 이방인들의 들어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등에 사건들을 연속적 사건으로 보지않고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 동시에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Versteeg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Door het woord ‘aldus’ wordt duidelijk gemaakt, dat Paulus niet denkt aan een bepaald tijdstip waarop gns Israel behouden zal worden, maar aan een bepaalde wijze waarop dat geschieden zal.”

그는 주장하기를 롬11장의 어디에서도 바울이 논의를 위해 그러한 시간적 기간에 대해 제시한 적이 없고 항상 현재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사용된 남은자의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남은자 사상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4.8.3을 보라).

Sanday와 Headlam 역시 “이러하므로”라고 번역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Hendriksen과 다르다. 그들은 그 문구들을 보충적으로만 보지 않고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 이방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이로인해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cf. 11f) 그들은 ‘*ουτω...σωθησεται*’라는 구절이 *πρωσις*라는 문장과는 동등어귀이고 *οτι*에는 종속절이 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Berkhof 역시 이 “이러하므로”라는 구절이 미래의 사건이라는 가능성을 배

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그러면 (so then)”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실의 급박성을 만드는 시간의 연속선상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는 그것은 “따라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앞절의 논지를 계속한다, 혹은 그것과의 연관성을 끌어낸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Cranfield는 심지어 “이들 앞의 상황들이 성취되어질 때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들 장들의 전체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현재의 (복음의) 거절이라는 슬픈상황과, 자기의 시대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의 민족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그가 가르쳐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25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는 그 슬픈 상황이 그때 “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본절의 *butως*는 25절의 “-때 까지”와 상호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문구는 그의 논지의 전체문맥속에서 선호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때”라고 번역된 N.E.B나 “그러므로 이 일 후에”라고 번역된 J.B. 처럼 그 단어는 시제 접속사가 되도록 요구된다.

위의 전제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를 상고해 보자. 첫째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제안들을 검토해보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해석을 향해서 노력해보고자 한다.

4.8.2 첫번째 이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먼저 우리는 *Ισραηλ*가 우주적 교회와 이스라엘 밖의 이방나라들 밖의 신자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거부해야만 한다. Carvin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etc. 많은 이들이 이것을 유대인들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확장시킨다. 이런 의미를 따른다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때, 유대인들 역시 믿음에의 순종을 거부했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모아질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가족의 장자이므로 첫번째 자리를 얻게되는 식으로 될 것이다... 이와같은 식의 언급을 잘6; 16절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불리워지며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로부터 같이 모아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확정하셔서 믿음에서 떠나있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을 대항하여 분산되어있는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렇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그들로부터 백함을 입은자들을 포함하는 교회를 제시한 것은 옳았다. 그들은 한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롬10:12,13; 갈3:28; 엡2:14).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은 성경적이며 바울적이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특히 이 특별한 문맥속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유일하게 갈6:16절을 증거본문으로 들고 있는데 보통 오직 한개의 증거본문만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4.8.2.1 갈6:16의 증거

이 규례를 행하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καί)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약전체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진 유일한 구절이 된다.

καί ὅσοι τῶν κανόνι τούτων στοιχησοῦσιν (16절) κανόνων은 외전상 할례와 그와 유사한 율법적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타당성을 가짐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신변에 막 놓여진 원리를 말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며, 율법과 그것의 종교적 규칙들로부터 해방된 자들위에다 바울은 평강과 긍휼의 축복을 붙여넣고 있는 것이다.

그 축복속에 나타나는 “평강”은 여기서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긍휼”(ελεος, 구약의 “hsd”와 동의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과 약속해 오신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 허락된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이다. “이 규례를 따라 걷는 자들”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소속된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왜 바울은 “καί 하나님의 이스라엘위에”라는 구절을 덧붙였는가? 이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고쳐하며 자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물려받은 이스라엘백성들을 임부에 두고 있었기 때문인가? 만약 이 구절이 첫번째 경우

에 속한다면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한 유일한 언급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의 전체문맥과 더 나아가서는 바울서신 전체를 관망하면서 살펴봐야만 한다.

“Kai”의 의미

접속사 Kai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and yet), 그러나, 등... 따라서 독자는 그 특별한 문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기 갈6:16에서도 이 접속사는 KJV, ARV, NEV 등에서 “그리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개의 다른 단어 사이를 연결시켜줌을 암시한다; 그리고 RSV와 NIV에는 “심지어—에게(EVEN TO)”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충함을 암시한다. 문맥을 보게되면 다음의 가능성들이 제시될 수 있다.

(1) Kai는 분리된 두 개의 주제를 동격으로 놓을 수 있다.: “이 규례를 따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경험적-민족적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우리는 이 번역본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경험적인 감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논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참백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2) “...하는 모든자들”은 이방기독교인들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첫번째 부분은 이방인들이 아닌 모든 신자들을 명백하게 암시하는 και ὅσοι 라는 단어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3) Kai는 그 문장이 부분으로 시작해서 전체에까지 확장되는 “확장된 의미의” 접속사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하는 모든 자들”은 갈라디아의 기독교 공동체이며, “...의 이스라엘”은 전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견해는 주로 유대적 축복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름으로 형성되어진다. 그러나 첫번째의 부류에 있어서 ὅσοι 가 한부분으로 제한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두번째 부류는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의 한 부분일 것이다.

(4) Kai는 “말하자면”, “즉”을 의미한다고 강력하게 주장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자”는 “...의 이스라엘”과 동일백성일 수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스럽다: 왜 바울은 동일한 부류를 다른 이름으로 반복해서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가? 바울이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그 동일한 집단에게 소개할만한 어떤 강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왜 그는 그 책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편지들에서 그 이유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았는가? 만약

그가 동일한 집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느꼈다면, 왜 그는 그 두 집단이 다른 입장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epsilon\pi\iota$ 를 그 양쪽 앞에 써 놓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가능한 해석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5) 위의 모든 제시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우리는 이제 최종적이고 가장 유망한 제시를 생각해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Kai가 "ὀυσι" 를 보다 더 특별하게 설명하도록 소개하는 것으로서 "또한(also)"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절은 '이 규례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또한 하나님 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읽을 수 있다. 즉, '하나님 의 이스라엘 역시 배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동조하여 우리는 그 문장의 특별한 해석을 취할 수 있다: $\epsilon\iota\rho\eta\nu\eta\ \epsilon\pi\iot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varsigma\ \kappa\alpha\iota\ \epsilon\lambda\epsilon\omicron\sigma$ 바울은 그의 축복을 선포한 후에 $\epsilon\iota\rho\eta\nu\eta\pi\iot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varsigma$ 외 에 다른 축복을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부가적인 단어인 $\kappa\alpha\iota\ \epsilon\lambda\epsilon\omicron\sigma$ 는 앞의 단어들과 모든 관계를 설명해 준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앞에말한 모든 단어들에 상응되어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부가적인 관심을 기록하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을 비난한 후에 바울은 마치 그가 이스라엘의 위치와 연관된 어떤 중요한 점들 무시하는 것처럼 이방 기독교인들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의한 유대적인 칭의를 다루고 율법으로 그들의 자부심을 정죄한 다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epsilon\lambda\epsilon\omicron\sigma$ 앞에 $\kappa\alpha\iota$ 가 놓여있는 그 문장의 구조는 아마도 이것이 하나의 추가된 차등의 생각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바울사도의 앞에서의 강한 반유대적인 표현들로 비추어 볼때, 그는 Kai를 삽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태도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강하게 강조해야함을 느끼는듯 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제3장),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제외하면 항상 이스라엘이고 역사-인종학적인 나라이며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에 의해 선택되어진 자들이다. 그 나라는 족장들 이래로 약속을 받았고 여전히 그것을 보존한다.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영적인 개념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로 표현된적이 없으며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결코 점한 적도 없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어떤 충분한 설명없이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4.8.2.2 갈6:16의 롬11:26 상반절과의 관계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학자들은 롬11:26a를 갈6:16에 비추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롬9-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한정된 해석을 적용한다. 이 두 서신서가 유대율법이라는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주제 즉, 이신독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자사이에 그 내용과 어조, 그리고 논점에 있어서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율법의 문제에 휩싸인 그들을 사람 하나하나 말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결코 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교회를 세밀하게 몰랐을 것이다. 로마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의 사전지식이란 남을 통해 들은 것들 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로마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때,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설명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논지를 매우 균형잡힌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교회는 다른 식으로 다루는데 그는 날카롭게 바로 악한 이론을 잘라낸다. 그는 균형있는 방법의 제시가 그의 친밀한 친구들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의 언급에 비추어서 일반적인 언급을 이해하는 것 보다 일반적인 언급에 비추어서 특별한 언급들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말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메시야적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장황한 개념을 제시하는 로마서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치 않으시며(11:1f),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만이 속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따라서 갈6:16에 관한 우리의 논쟁을 롬9-11장에 비추어서 다음의 이해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1)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속에서 준행하며 족장들에게 한 약속을 획득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Murray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데로 롬11:26a는 갈6:16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Murray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전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대조를 논의한 곳이 없으며,

반면에 로마서의 본 구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한결같은 대조가 나타나다. Hendriksen조차도 갈6:16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증명하려고 논한 후에 갈6:16이 로마서11:26a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갈6:16에서의 논증 외에도 바울은 그가 롬9-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교회라는 개념을 결코 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이론은 지지될 수 없다.

4.8.3 두번째 이론 : 남은자

두번째로 제시되는 이론은 “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택한자(남은자)의 총숫자를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유지될 수 없다. 비록 택한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특별한 절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의미가 제한된 문맥 안에서 다른 의미로 바뀌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앞절에서 “이스라엘”은 남은자들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우월성을 자부하는 완악한 상태를 암시함으로 인종적 이스라엘을 의미했다. 만약 25절이 “인종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절을 한정된 문맥내에서 또 다른 의미로 바뀌는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의미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이론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두 절을 동등어귀(또는 보충적으로)보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단어로부터 다른 의미를 추출해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로, 그들이 두 절(25절a와 26절a)을 동등하게 취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일 수 없다. Murray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다:

26절은 25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보증은 25절의 “이 비밀”로 불려진 것을 순전히 다른 식으로 말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6절은 25절과 밀접한 연속선상에 있다. 25절의 주된 주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이 이론은 25절의 “비밀”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 심각한 실패를 보여 준다. 만약, “비밀”이 현재의 완악한 상태와 이방인의 구원으로 제한되어 진다면, 그것이 바울이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했고,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던 참된 “비밀”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paslsrayl”은 “남은자(remnant)”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the rest)”의 재회함을 예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이론 가운데 가장 극심한 실패는 “남은자”의 개념을 오해한데서 나온다. 남은자란 내적인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집단, 즉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미래에까지 붙들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택된 백성이며, 보다 더 내적으로 제한된 이스라엘인데 말하자면 현시대의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민족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남은자 개념은 개인이라는 작은 운명의 구원에 강조점을 두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전체의 부흥과 신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Ezekiel이 Pelatiah의 죽음을 통고받은 후에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완전히 멸하시겠나이까?”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Palatiah 자신보다는 그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더 근심하였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종교를 섬기고 침략자들에 의해 무너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남은자들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우리는 남은자의 개념을 현재의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미래적 소망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항상 다가올 재난에 대한 관망과 연결되어져 있다(3장 2.5.1을 보라). 사10:20-23의 최초의 남은자에 대한 구절(롬9:27-28에 인용되어 있음)은 역사적 배경의 빛아래서 보아야 한다(Hasel이 1974:319에서 잘 지적한다). Hasel에 따르면 이사야의 이 구절은 7:3-9의 Shear-Yashub의 이름과 사명에 의해 암시되어지는데 거기에 명확한 역사적 그림이 앗수르와의 전쟁시 이사야와 Ahaz왕과의 만남으로 설명되어져 있다.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10:21)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 아들 Shear-Yashub과 함께한 이사야의 멧세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유배기간동안 왕과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남은자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가운데서의 구원의 선포를 의미한다. 심판뒤에 놓여 있는 것은 그의 자비의 멧세지였다. 남은자들은 생존을 위한 이스라엘민족의 잠재적인 힘이 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기간중이라도 언약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민족을 보존해야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어려운 때에만 나타난다. 남은자들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참 이스라엘과 동일시 될 수 있으나 일반적 개념으로 그런것은 아니다.

Gross는 최근의 연구들을 조사한 후 남은자의 개념을 요약한다: (1) 전체의 백성이 위협을 받을 운명이 되었을 때 오직 그들중 남은자만이 피하게 될 것이다(남은자의 부분적 개념); (2) 그러나 남은자가 정말로 살아 남았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성취이며 그 특별한 몰락을 뛰어넘어 확장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이고 누그러지지 않는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소수의 선택된 백성인 남은자는 그 약속의 새로운 간수자가 되기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살아 남아야 한다. 그런데 남은자는 한편으로는 정죄와 정벌로 파멸한 공동체와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따라서 남은자의 기능은 현재에도 그 민족의 생존을 보증하고(창7:23; 45:7; 왕상19:18; 사1:8f; 8:16-18), 미래의 실체를 예고하는 것이다(사7:10ff, 겔11:13ff). 그것은 특히 구원의 약속의 심부름꾼이며 그 민족의 소망이다. 남은자는 최종의 상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지 남은자들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은자는 그 민족이 재생하리라는 미래적 약속을 의미한다. 그것은 겨울의 인고끝에 결실을 맺는 씨앗이다. 그것은 나무를 생존케 하는 잠재적 힘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그것은 나무자체는 아니지만 나무의 미래를 보증한다. 따라서 남은 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초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보여져야 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의미가 교회에 대한 핍박들로 인해서 도전받았던 위기의 시대에 살았고, 가르쳤고, 기록했다. 남은자들을 다루는 그의 구절들속에서 오로지 남은자들에게만 제한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메세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바울의 메세지는 바로 이것이다: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 배반하는 현재에만 남은자들에게 제한되어 진다; 그러나 현재 남은자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바라본다.

마지막 어귀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11:11-24절을 위해 준비되어졌다. 11-24절에서 남은자가 최종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12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상실의 상황을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충만함”이 될 것이다. 25절에서 그 완악함이 부분적으로 보여질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들이 다시 선택되고(또는 받아들여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했다. (15절) “완악함”과 남은자는 일시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들어움, 그리고 나사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연속적 시간위에서 제시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질투가 불일듯하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의도이다(11, 12절); 그들의 범죄는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방인들의 부요함은 다시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가져올 것이다. 이 연속적인

개념은 감람나무의 비유속에서 더 확대되어 보여진다: 원래의 가지는 잘리고 야생의 가지가 접목된다. 그러나 바울은 원래의 가지가 다시 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때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이는 25절과 26절과 똑같은 경우이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지고 이방인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을 순서대로 놓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논증을 훌륭하게 진행한다: 남은자를 위한 현재, 반면에 충만함을 위한 미래; 완악함을 위한 현재, 반면에 구원을 위한 미래. 또는 그런 이방인의 가입. 그러므로 “오직 남은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구원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이론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정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견되어졌고(특히 겔37:1-14; Zch14:1-21) 여기서는 바울에 의해 알려졌다.

4.8.4 세번째 이론: 백성의 총체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견해의 다른 한 측면, 즉 민족적-우주적 해석 또는 이스라엘을 경험적-국가적으로 해석하는것을 거부하는데 이 견해들을 온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과, 집합적인 의미의 유대백성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경험적 민족적 움직임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것이 각각의 이스라엘백성 한사람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구속을 의미한다. 이 해석을 가지고 그들은 바울이 순수한 탐비적-유대적인 관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성급하게 만들어 버린다.

앞절에서 26절까지의 바울의 진술의 과정은 완악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진노에서 자비로, 일부에서 전체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그 장 전체를 통해 지켜온 패턴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대다수와 백성전체, 또는 이스라엘 민족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계수하면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상대적 비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비주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논지에 비추어 볼때,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택함받은자들이 참 이스라엘 이라고 거듭지적했음을 기억해야 한다(이 이론에 대한 논의는 바로 다음의 후속되는 장에서 계속하겠 다.)

4.8.5 마지막 제안: 이스라엘민족 전체

몇가지 이론들을 제시한 지금, 이제 우리는 *πασ Ισραηλ*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남은자라는 견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라는 것과는 반대로, 역사적—인종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제 우리는 숫적인 의미에서 아닌 “온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의미에서 이를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πασ Ισραηλ*은 “모든 이스라엘인들”과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숫자적 합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구약에서 “온 이스라엘” 또는 “모든 민족”을 사용한 용례를 보아 증명이 된다. 그것은 유기적 전체에 관심이 있었지 개인의 총 숫자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신약에서 행 13:24을 보면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와 세례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이 백성들의 모든 숫자를 의미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두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모든()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오히려 *Ισραηλ*의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6, 27절은 인종적 총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야곱의 구속에 대해 말해준다. 30, 3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스라엘)을 “너희들”(이방인들)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숫자적인 가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중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가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τουρ παντας)가 모든 인류의 구속의 수적인 완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세번째로, 그 문맥은 명백하게 *πασ Ισραηλ*이 믿지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바울은 믿지않는 그의 동포들을 위해 슬픔을 표시했다. 그는 그들이 구세주를 영접하는데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완악함 때문에 구원은 그들을 떠나버렸고 이방인들에게 옮겨졌다. 만약에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강력한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반전의 방법과 그것이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인이 될지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숫자가 될지, 하는 등의 그 수에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믿는 부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신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배제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바울의 교리는 로마서 전체에 걸쳐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참이스라엘이란 신체적으로 그 민족에 속했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추적하여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약속을 성

취한 사람이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이다. (고전 10:18; 요 5:41-44).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족장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9:4; 11:16). 따라서 이 모든 논의는 그 언약과 “누가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1:26-29과 9:4-13사이의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

11:28-29의 *πασ Ισραηλ*의 언급에서 ‘이스라엘’은 (1) 언약을 맺은 사람들(27, 28절); (2)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28절); (3)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4)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29절)이다.

9-4-13의 “참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에서 ‘이스라엘’은 (1)언약의 백성들(4, 5, 6절); (2) 하나님의 택한자라고 불리는 자들(11절); (3)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4절); (4)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11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육체적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에 “모든 이스라엘”이란 참신자의 일부 또는 남은자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해 해야 한다. Sanday와 Headlam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러므로 바울사도의 말은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민족으로서 그리고 더이상 *απο Μερους*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의 교회안에서 연합되어질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최후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전에 누가 죽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전체를 다루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과 언약가운데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다. 구약의 전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오고 있으며 예언자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한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 다시 확증한다. 미래의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때 이루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2절과 함께 현재의 절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12절은 현재의 부분적 구원이 “충만한” 즉, 전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 준다. 그 절은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함”과 동일한 암시를 보여준다. 12절의 주석에서 이미 언급된 것 처럼 “충만함”이란 질 뿐 만 아니라 양도 암시하고 있다. 이모든 사실들을 함께 상고해보면 “충만한 수의 계수”로서의 ‘pas’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것은 “남은자”의 개념과도 다르며 “숫자적 총체”로서의 개념과 다르다. 오로지 복음의 선포의 결

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택한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있는 그들이 그백성이나 이스라엘민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스라엘”은 양적, 질적의 두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만족되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11:26a의 *πας Ισραηλ*은 성경전체의 문맥과 특히 롬 9-11장에 비추어 설명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성경전체를 조사해보게 될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인종적 이스라엘을 말한다. 로마서의 문맥속에서의 “이스라엘”은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에의해 선택된 자들을 말한다. “모든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 전부를 의미하며; 이스라엘로 부터 선택된 모든 자이며;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이다. 그것은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인 백성들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부분적으로 남은자라고 이해 해서도 안된다.

4.9 성경을 통한 바울의 확증(롬 11:26b-27)

26b와 27절은 논리적으로 26a와 연결되어 있다. “……에 쓰여져 있는데로”라는 단어는 26a에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선포가 구약성경에 의해 확증 되어짐을 암시한다. 구약에서 단지 한개의 구절만 인용한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심포지움에서 하듯이 여러개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사야 59:20, 21; 27:9,과 더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31:31-34절의 인용이라고 믿어진다(cf Hendriksen).

Stendahl과 Davies는 마소라 원문에는 그리스도로서의 구속자라는 강한 암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마소라 본문의 이사야 59:20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시온을 위한 구속자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분으로 언급된 경우가 더 많은것 같다. 사 59:21을 인용한 롬 11:27의 내용은 야훼와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말함에 틀림없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성취하신다. 비록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오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속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롬 9-11장에서의 바울의 강론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사실로도 지지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장들에 나타나는 강론의 핵심부를 이룬다. 우리가 이 견해를 받아 들인다면 본 구절들이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재림의 순간에 일어날 메시아의 특별한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것이 아니며, Hendriksen의 주장처럼 초림에 의한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의 사전도 아니며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며 이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 59:21의 일부를 인용한 27절에서는 *δύτη*가 언약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27절의 후반부를 기다리고 있다. *δύτη*는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개의 절을 소개한다. 바울은 다시 약간의 변화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것을 조합하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사 27:9을 인용한 27절의 후반부).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논지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특히 새언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새언약은 이스라엘과 함께 정착되고 그의 은혜로운 죄사함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쪽으로 끌어간다(특히 램 33:24) 비록 바울이 그 말을 이사야의 본문에서 인용하긴 했지만 그의 심중에 예레미야의 새언약을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완전한 죄사함을 보증하는 것은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아닌 새언약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 새언약을 소개하셨을때 이 언약은 유효해졌으며(특히 이방인들에게) 언젠가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받아 들이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은 백성들에게 인준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완전한 사유함과 순종의 축복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독자들은 언약적 관망속에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구원—여기서는 *σωθησεται*로 표시되어 있는—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그 언약을 하나님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께 그런 의무를 지운다는 가정을 없애버릴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의 전 논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언약이라는 최후의 단어로 그의 논지를 명확히 한다. 이스라엘민족을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의 우리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 왔었고 신약의 연구에서도 역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2절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바로 앞에서의 비교와 9-11장 전체에서 말해진 것들을 요약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진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바울은 어떠한 분파심이나 우월감도 피한다. 그는 모든 민족들과 온 이스라엘 모두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예언을 과감하게 말한다(11:31f). 그는 세상을 향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증명한다(15:14-19: cf 8-31f). 그의 소망은 모든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구원이다.

신중하게 살펴보면, 관심의 초점이 먼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뜻과 그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cf Ridderbos). 이런 식으로, 만약 어떤 논쟁적인 신학자가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를 부수

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의 사고와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모든것이 완료되어진 후에 인간들은 단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뿐이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부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혼적은 찾지 못할 것이라! (11:33).

5. 신약에서의 새언약

제2부에서 본것처럼, 새언약은 포로에서 백성들을 돌이키심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문맥속에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게 주어 진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새언약은 어떠한 인종에 속해 있든기간에 그리스도를 믿는자라면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은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외치게 할지도 모른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새언약이 언급되어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방신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신약에 나타나는 새언약의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5.1 눅22:21(cf 막 14:24; 마26:28)

누가복음의 “새언약”이라는 구절은 확실히 렘31:31의 성취이다. 그러나 피에 대한 말씀은 이 출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니다. “내 언약의 피”는 오히려 출24:8을 암시한다. 출24장의 번제와 화목제의 희생피를 취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최후의 희생으로 곧 흘리실 자신의 피의 예표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것은 과거의 희생제도를 취소하는 새언약의 개념과 일치한다. 본문의 암시의 관련은 옛언약의 피는 상징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표였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해 새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희생의 피는 그들이 모세아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후에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확증시킨다; 이제 그것은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롭고 참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구원론적 의미에서 새언약의 시작을 보여 준다.

5.2 히브리서8:1-10:18

언약이라는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7:22의 그의 논의 가운데로 이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8:6에서 “더 나은 언약”에 대한 한층 더 나아가는 언급이 예레미야31:31-34을 전부 인용한 부분(8절)의 앞에 기록되

어 있다. 저자는 모세의 언약을 명백하게 언급하는 “처음언약”과 “새언약”의 예법과 효력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cf. 8:4-6; 9:15-22). 저자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건의 구원론적 중요성을 그 수신자들에게 드러내려고”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저자가 그 언약을 “넓게는 섬기는 예법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이 구절이 단번에 모든것을 명확하게 해결 것처럼 새언약의 모든 요소들을 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모세의 언약(특히 이스라엘의 선택)의 모든 의미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것을 구속의 제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본문은 모세언약 아래의 옛 희생제도의 불충분성을 다루고 있다(7:19,25; 9:9; 10:2). 그리스도의 희생의 총족함이 옛제도와 비교되어 진다(10:12-22).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이 죄사함을 위한 필요하다는 것과 새로운 언약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조되어 진다(9:26,28; 10:29; 12:24; 13:20).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의 완성은 속죄일의 모습들속에서 설명되어 진다(9:11-14). 지상의 대제사장 직분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λεϊτουργια)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일어난다(8:6). (λεϊτουργια)는 전문적 용어로 제사장적 제사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저자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배경과 함께 채택한다”. 그것은 오실 메시야의 경이와 징조로서 하늘의 법정앞에 서있었던 Zechariah가 보았던 Joshua의 옷에대한 환상을 암시해 준다.

9장의 주제역시 희생이다. 그리스도의 자기희생 때문에 새언약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되고 보증되었다. 그의 피로 인해 믿는자들은 예레미야서에 약속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증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새언약의 증보자요, 보증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8:6; 7:22; 9:15; 12:24). 이제 그의 희생적 죽음에 의해 예레미야가 말한 그“날”이 실체가 되었다.

5.3 여전히 미래를 소망함

히브리서저자는 이순간 새언약의 문제가 이제 막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한다(10:23).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게된다(10:27).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끝나 버렸다면 왜 심판의 예고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가?

하늘의 장막이 강조되는 그단락(특히 9:23ff)에서, Bruce는 하늘의 장

막을 이사야66:1f가 인용되어 있는 행7:48에서의 스테반의 설교처럼 영적인 성전으로 본다. Peterson은 저자가 단7:13ff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옳게 보았다. 저자의 의도는 9:24절에서 “하늘의 성소”가 약속의 백성들이 돌아와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된 땅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최종의 성취인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결론적으로 신약의 구절들을 살펴본 후에 우리는 새언약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해 시작되어져 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죄사함의 약속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신약의 새언약에 관한 구절들은 구원론적 관점의에는 침묵한다. 믿음의 새롭게됨, 율법의 준수, 하나님을 앎, 젊은이와 늙은이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언급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새언약이 있게된 회복의 전체 문맥이 이구절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왕국으로 모우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의 참된 관계는 이루어 졌지만, 신자들은 아직 영원한 장소에서 살고있지 않다. 신약은 이제 오게될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새언약의 중보자로 말하고 있다. 이개념은 갈3:16(4.4.2를 보라)의 참된 ‘자손’의 개념과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민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새언약의 축복을 얻는다. 따라서 그 민족의 축복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간의 언약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6. 결 론

신약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흠어왔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인종적 의미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된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구별되어 진다: 전자는 언약의 특권이라는 능력을 가진 반면에 후자는 경험적 의미로 그들의 나라나 종족에 속함을 암시한다. “유대인”은 요한복음과 서신서 등에서 대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자부심때문에 힐문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또한 신약에서 “교회”와 구별된다: 전자는 언약의 백성의 협소한 계열을 지적하지만 후자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을 보유한다. 하나님의 메시아적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과 참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열국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갈6:16의 매우 불확실한 구절을 제외하면 결코 “교회”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복음의 선포속에서 우리는 또한 특수성(이스라엘)과 보편성(열국들)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누가복음의 전반부와 다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명백히 보여진다. 예수의 선포적 사명 역시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다음에 열국들이다(마10:5; 15:24; 눅19:10; cf. 롬1:16)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지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로 심각한 전환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전해졌다. 롬15장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부터 이스라엘로의 복음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롬9-11장에서의 바울의 논지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에게로와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로의 구원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당시 그의 종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민하게 될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그린다. 심지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의 동족의 시기심을 발동시켜 그들도 구원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롬11:14). 우리는 이 장들에서의 바울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는다(9:1-4).
- (2) 구원은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바로 향해진다(9:19-10:21)
- (3)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남은자는 이 사실의 증거이다(9:1ff).
- (4) 현재의 백성들의 완악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위해 이방인들을 사용 하신다(11:17-21).
- (5) 이방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목되어 왔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원가지에 대해 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11:17-24)
- (6)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궁극적 결론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11:24f).
- (7)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수납자들이다(11:28-32).

“은 이스라엘”이란 유기적 전체로서의 역사적—인종적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소유할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의 새언약에 대한 구절은 그것을 폐지하지 않는다. 이방신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들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참자손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새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에 놓였다는 견해를 거부해야 한다.

바울의 기대는 이방인 운동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기독교 운동이다.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교회와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참이스라엘과 이방신자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동일시 될 수 없다. 교회(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어떠한 분리운동도 허용될 수 없다. 바울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들에게 인종이나 국적에 근거한 어떠한 우월성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체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종적 특수성은 인정하였다.

제3부 결 론

과거 여러 세기동안 구약성경 연구의 접근방법은 역사—비평적 학풍에 의해 혼란과 심한 공격을 받아왔다. 비평학파의 학자들은 대개가 그들의 역사적 탐구를 짧게 끝내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상응하는 연구 결과를 맺는데 실패해 왔다. 한편, 어떤 복음주의 학자들은 계시사의 발전을 신중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쉽게 성경구절들을 영해해 버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들을 상속받겠다고 한다. 위의 두 경우의 학자들 모두가 계시사와 우리의 신앙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때문에 무시되어져 왔다.

우리는 탐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없이 한순간도 버림받은 적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시내산 백성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통해 선택받은 백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들이 유리할때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는 극심한 벌들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역사이래로 그들의 존재는 전적으로 백성편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때문에 열국들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불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 왔다(겔 36: 16-2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염려하시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겔 36: 22)”고 선포하신다. 그의 결심은 흠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는 열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령을 “이스라엘의 집”에 부어주실 것이다

(겔 39: 29).

비록 구약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하게 강조하지만 여호와와 최종적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까지 간다.

여호와와 왕국의 보편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즉 아브라함과 언약때문에 보여진다. 열방을 향한 약속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억되어지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은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겔 36: 23; 39: 27-28)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사역을 통해 열방들이 여호와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부흥은 죽은 이스라엘의 몸위에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한다(겔 37: 1-14). 죽은자는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의 백성들에 의해 재정립될 것이다(겔 37: 15-24). 여호와와 종 다윗은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것이다(겔 37: 24; cf. 렘 23: 5; 30: 14-17; 34: 23). 여호와는 그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겔 37: 26). 그들의 죄는 사해될 것이다; 새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따를것이다. 그는 그의 거룩한 성소를 지으시고 영원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26절)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주었고 너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거하라”(25절). 그들은 화평하게 영화를 누릴 것이다(겔 34: 25-30; 36: 33-38; 렘 31: 5; 31: 12-14등).

이 모든 약속들은 열국 가운데 흠어져 살던 바로 그 동일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들을 고향으로 모아 돌려 보내는 것은 가장 현저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그 조상들(때때로 야곱)에게 주었던 땅은 다름아닌 가나안땅이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될 하늘나라라고 영해를 한다. 가장 심각한 영해는 새언약이 새신자들(이방인들 중에)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지지할 수 없다. 새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주어졌다(렘 31: 31). 이것은 유배기간중에도 그들에게 반복되어졌고 모든 언급들이 귀환의 약속과 함께 되어 있다(렘 32: 41; 겔 34: 25; 37: 27). 새언약은 옛언약(시내산 언약)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심에 엄숙하게 기초하고 있다(겔 16: 59f). 따라서 신, 구언약 사이의 연속성이 강하게 강조된다. 새언약은 어떠한 새로운 예법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손길에 의해 옛언약의 예법을 효과적이고 영원히 지속적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두개의 다른 언약, 즉 옛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새언약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속될 수가 없다.

새언약이 봉인 되었을때 여호와와는 엄숙히 맹세하셨다.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를 낮에 비추게 지정하고 달과 별을…… : 이 규정이 내앞에서 폐할전데……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렘31 : 37) 라고 했다.

누가 그 자연의 규정들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땅아래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끝나버렸다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사고영역 밖에 놓여있는 비밀이다. 그러나 이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구원 계획이다.

학개와 스가라는 그들 시대에 이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논쟁이 자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포로기후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라는 여전히 모든 회복의 약속들을 재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스가라는 계속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재반복한다(슥8 : 7f ; 10 : 8-12). 귀환한 공동체의 상태는 종말론적 공동체와는 많이 다르다(학2 : 10ff ; 슥11 : 4 ff).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미래구원의 종말론적 소망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 이들 포로후 선지자들은 또한 회복의 모든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학개는 성전과 관련된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스가라는 환상과 목시가운데 그 나라(자연적이고 정치적 의미의 왕국)의 회복을 길게 묘사하고 있다. 제사장—왕직—메시아의 3중직이 스가라에 의하여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회복은 그 3중직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교적 측면의 표현으로 더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종교적 측면이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한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마3 : 2 ; 4 : 17 ; 10 : 7 ; 눅10 : 9 ; 등). 눅1 : 31-33은 다윗의 위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왕권과 관련하여 메시아왕국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 나라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옛지상적 왕국과 같을 것이라고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메시아왕국이며 지상역사의 끝에 올 것임에 틀림없다. Verhoef같은 전천년주의자들은 메시아왕국에 대한 예언을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에 적용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나 재림이전에 그러한 왕국이 땅 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영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지상역사가 끝난 후에 땅위에 있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부인해야할 이

유가 없을 것이다.

메시아왕국은 영적인 면(종교적), 정치적인 면, 그리고 자연적인 면의 모두 3가지 단면을 가진다. 자연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그 왕국이 땅위에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옛이스라엘 왕국과 같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적 왕의 법칙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의 온갖 종류의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옛 다윗왕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백성가운데 두시고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지성소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심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종교적 왕국에서의 회복은 옛날의 제사제도로 돌아가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전의 규례와 구조를 따르는 그 희생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재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성취하셨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완성과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구약 본문들의 “영화(spiritualization)”을 고려함에 있어서, 후자는 교회가 새 언약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새 언약의 약속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도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과 그 약속들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자가 후자로 대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인(창22 : 18 ; 26 : 4 ; 갈3 : 16 ; Part VI, 4.4.2.1을 보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약속들을 취한다. 예수는 새 언약의 본체가 아니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인격과 사역안에 모든 약속들을 취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새언약의 약속들을 즐기게 된다.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속에서 연속성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나,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신약시대에 열방으로 부터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엡2 : 12ff).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위에 접붙임을 받았고, 그 속에 유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참 이스라엘이 남아있다(롬11 : 17-24).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화(spiritualised)되지 않고, 이방인 신자들만 영화된다. 거룩한 뿌리(족장들)

를 가진 이스라엘 나무는 잘려진 것이 아니라, 약간의 나쁜 가지들만 정화된 것이다.

현재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래가 있다. 그 새 언약의 본문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렘31:31)라는 종말론적인 구절로 소개되어 진다. 이 종말론적 희망은 포로시대와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된다. 비록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바울의 때의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모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보았다. 모든 영감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것인가? 그 희망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의 선택에 근거했으며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그들을 거부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제공한다(Munck, 1967: 107). 바울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롬11:1f)란 논쟁은 구약성경의 약속: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성12:12);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시94:14)(참고 Cranfield, 1979: 543)으로 들린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특수성이 계시사를 통하여 주장되어 왔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 다윗의 때, 포로시대와 포로후기.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롬9:1-4)(Nygren, 1978: 392). 이것은 부인되어지거나 영화(spiritualised)될 수 없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 역사적 근거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서는”(Coetzed에 인용, 1965: 170, Torrance로 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은 교회의 희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교회의 희망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충만한 수로부터 나온다. 야훼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신실하심이 교회의 희망을 강하게 한다. 그가 이스라엘과의 그의 약속을 따라 충실하게 일하시듯, 마찬가지로, 그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충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부터의 새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란 용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진 종말론적인 무대위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모든 약속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론을 거부하고(“연속성”을 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약속들이 현대 이스라엘 정부수립으로 성취되었다는 억측 또한 거부해야 한다(“불연속성”을 봄으로). 에스겔은 결코 세속 이스라엘 정부의 회복이나, 옛 이스라엘 정부로의 귀환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훼의 참 종교

에로의 개종을 통한 민족의 회복을 말한다. 부흥의 근본적인 요소는 야훼와 그의 종, 즉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고, 세속적인 지도자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백성들은 안전과 평화속에서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야훼에게 돌아옴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야훼의 예배에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을 이방인 신자들과 공유할 것이다. 메시아적 왕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즐길 것이다. 야훼가 그 백성들 사이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야훼와 그 백성 사이의 참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예루살렘성이 그에게 헌납되어질 것이고, 전 도시가 야훼의 거하시는 곳, 즉 성소가 될 것이다. 말하여지기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겔48:30-35).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의무

교회는 복음이 그들로 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사가 담겨졌다고 생각함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의무를 간과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류교회(min-line) 교회의 이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이스라엘의 미래 희망을 증명함을 입증한 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또는 유대인)의 현존의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 그리고 어디로 부터 그들은 왔는가? 그들의 존재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는가, 그리고 그들은 단지 세상속에 있는 한 민족(또는 한 국민)에 지나지 않는가? 역사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멀리 전 세계를 방황하였는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얼마나 수치를 당해왔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는가? 만약 우리가, 소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역사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진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존의 어떤 의미를 간과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바울은 그때 그의 관심을 이스라엘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새 희망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심오한 전체적 추론의 주된 요지는 그 자체를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현존과 관련되지 않고, 은혜의 선택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의 일관성과 관련된다는. 우리는 우리시대

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하여 논쟁할 때 논쟁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지만, 이러한 약속들 속에서 그는 결코 그 자신을 인간 의지에 복종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진리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1971: 319)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사9:7)라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그가 이것을 행하시도록 기다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와 가입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그들과 합류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나는 진밀하게, 그들의 불신앙에,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음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로 부터 들어왔고 고통을 당해왔기에 기독교 예언을 믿도록 준비되지 못한다. 아마도 예수께서 아직 다시 돌아오실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독교 예언이 이스라엘의 귀에 도달하는데 매우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지켜보며 울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그의 자녀들을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로 부터 모으실 그 위대한 날을 위해 기도하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분야

더 한층 심층된 연구를 위한 분야로서 다음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대화: 상당한 수의 출판물이 이 영역에 대하여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출판물은 신약의 배경에서 나왔다. 그 둘 사이의 일반적인 기초의 큰 영역은 구약의 배경에서도 발견된다.
- 2) 천년왕국에서의 회복: 무천년주의자들은(주로 언약신학자들) 왕적 메시아의 지상적 통치와 본질을 부인한다. 천천년 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역사적으로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연구가 약속의 성취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잡힌 작업이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경구절을 세상의 사건들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견해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에로의 개종을 통한 민족의 회복을 말한다. 부흥의 근본적인 요소는 야훼와 그의 종, 즉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고, 세속적인 지도자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백성들은 안전과 평화속에서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야훼에게 돌아옴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야훼의 예배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을 이방인 신자들과 공유할 것이다. 메시아적 왕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즐길 것이다. 야훼가 그 백성들 사이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야훼와 그 백성 사이의 참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예루살렘성이 그에게 헌납되어질 것이고, 전 도시가 야훼의 거하시는 곳, 즉 성소가 될 것이다. 말하여지기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겔48:30-35).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의무

교회는 복음이 그들로 부터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사가 담혀졌다고 생각함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의무를 간과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류교회(min-line) 교회의 이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이스라엘의 미래 희망을 증명함을 입증한 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또는 유대인)의 현존의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 그리고 어디로 부터 그들은 왔는가? 그들의 존재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는가, 그리고 그들은 단지 세상속에 있는 한 민족(또는 한 국민)에 지나지 않는가? 역사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멀리 전 세계를 방황하였는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얼마나 수치를 당해왔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는가? 만약 우리가, 소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역사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진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존의 어떤 의미를 간파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바울은 그때 그의 관심을 이스라엘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새 희망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심오한 전체적 추론의 주된 요지는 그 자체를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현존과 관련되지 않고, 은혜의 선택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의 일관성과 관련된다. 우리는 우리시대

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하여 논쟁할 때 논쟁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지만, 이러한 약속들 속에서 그는 결코 그 자신을 인간 의지에 복종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진리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1971: 319)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루시리라”(사9: 7)라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그가 이것을 행하시도록 기다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와 가입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그들과 합류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나는 긴밀하게, 그들의 불신앙에,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음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로 부터 들어왔고 고통을 당해왔기에 기독교 예언을 믿도록 준비되지 못한다. 아마도 예수께서 아직 다시 돌아오실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독교 예언이 이스라엘의 귀에 도달하는데 매우 매우 긴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지켜보며 울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그의 자녀들을 모든 민족들과 이스라엘로 부터 모으실 그 위대한 날을 위해 기도하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분야

더 한층 심층된 연구를 위한 분야로서 다음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대화: 상당한 수의 출판물이 이 영역에 대하여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출판물은 신약의 배경에서 나왔다. 그 둘 사이의 일반적인 기초의 큰 영역은 구약의 배경에서도 발견된다.
- 2) 천년왕국에서의 회복: 무천년주의자들은(주로 언약신학자들) 왕적 메시야의 지상적 통치와 본질을 부인한다. 전천년 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 자들은 종말론적인 예언을 역사 적으로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연구가 약속의 성취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잡힌 작업이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경구절을 세상의 사건들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견해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이스라엘의 저주: 우리의 연구가 이스라엘의 회복면을 다루는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면의 심판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뎀의 손에 의한 저주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심판의 연구가 회복에 대한 우리의 주제를 더 충분하게 조명해 줄 것이다.